

安在鴻의 政治思想研究

— 그의 新民族主義論을 中心으로 —

鄭 允 在

(外交安保研究院 研究員)

<目 次>	
I. 序 論	5. 「萬民共生論」
II. 民世의 歷史觀과 民族主義理解	IV. 「新民族主義」의 政治思想
1. 解放과 民世의 歷史認識	1. 「부르조아데모크라시」批判
2. 鬭爭的 歷史觀	2. 마르크시즘 批判
3. 民族主義의 理論과 實際	3.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
III. 民世의 「朝鮮哲學體系」	(1) 綜合的 唯物史觀
1. 「物心兩元論」	(2) 「다사리理念」의 回復：階級鬭爭의 止揚
2. 「大一道論」	(3) 議會主義
3. 「다사리理念」	V. 結 論
4. 「開闔會通論」	

I. 序 論

近代韓國의 民族主義를 規範과 葛藤의 脈絡에서 살펴 볼 때, 그것은 <民族的 危機>라는 現實認識과 그것을 克服하기 위한 <새로운 理念의 創出>이라는 理想을 內容으로 그 性格이 形成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 특히 19世紀부터 韓半島를 中心으로 展開되었던 國際政治構造는 韓民族社會의 <民族的 主體性의 危機>를 招來하였을 뿐 아니라 그 主體性은 個人과 共同體의 福利와 發展을 통해서만 維持될 수 있다는 公理가 權力集團에 의해 無視됨으로써, 그 正統性까지도 危機에 逢着하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民族主義는 언제나 이와같은 民族的 危機의 克服이라는 課題를 理念構成의 基本目標로 삼고 展開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韓國民族主義의 第一期였던 開港以後 3·1運動以前에는 異質的인 外勢의 衝

(1) 李洪九, “韓國民族主義研究를 爲한 基礎的 思考,” 「曉岡 崔文煥博士 追念論文集」(曉岡先生紀念事業推進委員會, 1977), pp. 393-394 參照.

擊에 대하여 衛正斥邪, 開化自強·東學思想 등으로 民族의 自主性確保를 爲한 끈질긴 鬪爭과 抵抗이 그 主流를 이루었고⁽²⁾ 第二期에 該當하는 3·1運動以後부터 8·15 解放以前까지는 韓民族史上 最初로 近代志向의 民族意識이 定立되는 한편 韓國民族主義의 理念이 現代의 意味의 〈保守〉와 〈進歩〉로 分裂되었던 時期였다.

그런데, 筆者가 생각하는 바, 이 時期의 民族運動을 評價하는 데 있어서 특히 留意해야 할 것은 〈主權回復〉이라는 民族의 課題 때문에 當時 世界的 潮流로 流行했던 社會主義 或은 마르크시즘의 理念的 受容은, 反日·反帝·反植民의 抵抗과 鬪爭에 直結되어, 그것에 대한 徹底한 分析, 研究, 批判이 省略된 채 이루어졌다는 點이다.⁽³⁾ 다시 말해서, 1917年의 불세비크革命의 影響으로 韓國의 獨立運動에도 새로운 分派가 形成되었던 바, 當時 進歩의 일을 자처했던 民族主義 知識人들도 막연히 社會主義思想에 동조한 나머지 共產主義와 非共產主義의 社會主義와의 이데올로기상의 差異點을 깊이 認識하지 않고, 共產主義運動에 휩쓸렸던 것이다.

그러면, 解放以後 第三期의 韓國民族主義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이 時期의 韓國民族主義의 目標은 이제까지의 韓民族史에서 成就되지 못했던 主體性의 危機와 正統性의 危機의 克服이라는 課題를 同時에 解決할 수 있는 〈統一獨立民族國家의 建立〉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時代的 要請은 當時 政治엘리트의 意識내지 思想을 形成하는 「社會的 背景」(social settings)을 構成하는 것으로서, 思想的으로는 民族主義와 社會主義의 理念的 接合이 가능한 새로운 政治이데올로기의 創出이었으며, 現實的으로는 左右勢力의 共同前線, 即, 左右合作의 成就였다. 따라서 解放以後의 韓國民族主義는 이와같은 理念的, 現實的 次元의 社會的 要求(social demand)에 대한 反應(response)이라는 脈絡에서 그 性格이 決定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時代狀況에서, 當時의 建國運動에 積極的으로 參與했던 政治엘리트中の 한 사람이었던 民世 安在鴻(1891~1965)은, 스스로 「新民族主義」

(2) 韓國民族主義의 時代區分은 千寬宇氏의 見解에 따름. 陳德奎編, 「韓國民族主義」(現代思想社, 1977)에 실린 千寬宇, “韓國民族主義의 構造的 性格,” pp. 63-69 參照.

(3) 梁好民, “韓國民族主義와 社會主義,” 「韓國民族主義의 理念」(亞細亞政策研究院, 1977), pp. 192-193; 車基壁, “日帝下의 韓國民族獨立運動,” 「韓國民族主義의 理念과 實態」(까지, 1978), p. 190 參照.

의 政治思想을 主張하여 左右對立에 의한 民族分裂의 危機를 克服하고, 萬民 共生을 理想으로 하는 새로운 國家의 創設을 實踐하고자 하였다. 그는 日帝 36年을 통하여 前後 9次에 걸쳐 7年 3個月의 獄苦를 치르면서도 志操을 到底한 行動으로 日帝에 抗拒했던 言論人이었으며, 民族生存에 대한 獨自의인 思想으로 獨立運動을 展開했던 出衆한 民衆指導者였다.⁽⁴⁾ 民世는 韓國固有의 政治哲學을 바탕으로 하는 <다사리理念>의 回服을 통하여 獨立鬭爭期의 民族主義가 지니는 閉鎖性과 抵抗性을 克服하고, 當代西歐의 思想의 主潮를 이루었던 社會主義理念을 辨證法的으로 受容·統合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民世의 「新民族主義」政治思想은 近代韓國民族主義의 展開過程에서 韓國民族主義가 從來의 傳統的인 抵抗性을 克服하고, 普遍的인 主體的 이데올로기로 轉換할 수 있는 重要한 契機를 提供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韓國政治學은 解放以後의 政治를 研究하는 데 있어서, 特定人物이나 政治勢力의 活動을 評價 또는 再解釋하는 데에 置重했을 뿐, 現代韓國政治史에서 「思想의 百花齊放期」라 할 解放直後의 時期에 出現했던 諸政治思想을 分析하고 그것을 現代的 脈絡에서 評價하는 作業에는 매우 疏忽했던 것이 事實이다. 그 결과 韓國民族主義의 展開過程에서 重要하게 評價되어야 할 民世의 「新民族主義」政治思想에 關한 研究는 거의 全無한 狀態이다.⁽⁵⁾

그리하여 本論文에서는 이같은 韓國政治思想研究의 知的 空白을 部分的으로 補完하기 위한 努力의 하나로서 民世 安在鴻의 「新民族主義」政治思想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물음에 準據하여 整理, 分析, 評價하고자 한다.

첫째, 日帝治下에서 解放된 祖國이 또 다시 強大國의 介入으로 因하여 ‘分斷’이라는 民族史의 危機에 直面했던 當時의 狀況에서 한 사람의 知識人, 그리고 責任있는 政治엘리트로서의 民世는 <統一獨立民族國家의 完成>이라는 民族의 課題를 어떠한 政治思想으로써 解決하려고 했는가?

둘째, 民世가 丹齋 申采浩, 爲堂 鄭寅普, 白巖 朴殷植과 함께 民族史學

(4) 千寬宇, “民世 安在鴻 年譜,” 「創作과 批評」(1978, 겨울), p. 212.

(5) 다만 安在鴻에 대한 人物記로 다음의 세편이 있다. 柳光烈, “安在鴻,” 「東光」(1932, 7月號); 任洪彬, “安在鴻論,” 「政經研究」(1965, 9月號); 李庭植, “構成 民世安在鴻의 自叙傳,” 「新東亞」(1976, 11月號). 그리고 最近에 陳德奎編, 「韓國의 民族主義」(現代思想社, 1979)에 安在鴻의 논문 “新民族主義의 科學性과 統一獨立의 課業”이 실렸고, 「創作과 批評」(1978, 겨울)에 千寬宇의 “民世 安在鴻 年譜”가 紹介되었다.

系列에 속하는 史學者였다는 點을 考慮할 때 그가 생각했던 韓國固有의 政治哲學은 무엇이었는가?

세째, 當代에 가장 卓越했던 言論人 中の 한 사람이었던 民世는 民主主義, 社會主義, 民族主義, 마르크시즘, 레닌이즘 등과 같은 西歐의 政治思想과 東·西洋諸國의 近代史經驗을 어떻게 理解하고 批判했는가?

네째, 만약 民世의 「新民族主義」政治思想이 韓國民族主義의 展開過程에서 意味있게 評價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現代韓國政治의 主流를 貫通하는 政治이데올로기로서 成功하지 못했던 理由는 무엇인가?

本研究를 위해서 筆者는 民世의 著書와 解放을 前後해서 發刊된 各種 雜誌, 新聞 等に 실린 評論, 論說, 民族主義에 대한 國內外學者들의 研究, 解放前後時代에 대한 國內外學者들의 研究實績 等を 두루 參考·利用하였으며 먼저 그의 鬭爭의 歷史觀과 獨創의인 「朝鮮政治哲學體系」를 一瞥한 다음 西歐政治思想에 대한 理解와 批判, 階級鬭爭의 克服과 「議會主義」等 「新民族主義」政治思想의 具體的인 內容을 分析, 整理하였다. 마지막으로 筆者는 民世의 「新民族主義」를 要約하고, 그것이 8·15解放以後, 韓國民族主義의 第三期에 登場했던 民族主義의 한 形態였다는 점에 留意하여, 民世의 「新民族主義」가 解放以前의 韓國民族主義와 어떠한 面에서 區別될 수 있으며, 現代政治思想의 흐름과 어떠한 聯關性을 갖고 있는지를 究明하였다.

II. 民世의 歷史觀과 民族主義理解

1. 解放과 民世의 歷史認識

1945年 8月 15日, 日帝로부터 「解放」을 맞이한 韓國社會는 하나의 理念으로 民衆을 이끌어 나갈 國際的으로 認定받는 主體勢力이 없었기 때문에, 非組織的이고 無秩序한 政治活動으로 一大混亂을 모면하기 어려웠다.⁶⁾ 冷戰을 이미 經驗한 바 있는 오늘날의 狀況과는 달리 當時의 많은 사람들은 蘇聯이 聯合軍의 一員으로 美國과 함께 韓國의 獨立國家建設을 위해 努力해 주리라 믿었다. 또한 政治思想에 있어서도 民主主義, 共產主義, 社會主義 등의 概念에 대한 充分한 知的 訓練이 未備된 狀態였기 때문에 一般國民들

(6) 宋建鎬, “解放의 民族史的 認識,” 金學俊 外 「解放前後史의 認識」(한길사, 1980), p. 23 參照.

은 亂立하던 政治集團에 의해 宣傳되는 갖가지 政治的 슬로우건의 洪水 속에서 右往左往하였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解放의 기쁨에 도취되어 日本軍의 武裝解除와 함께 聯合軍도 即時 退却할 것이고, 멀지않아 새 獨立祖國이 完成될 것이라는 浪漫的인 유토피아의 꿈에 젖어 있었고, 左翼政派의 사람들은 蘇聯이 日本軍의 무장해제를 진담하여 부산, 목포, 제주도까지 進駐할 것이고 조만간 韓半島에서는 蘇聯式 勞農政權이 樹立될 것이라고 斷定하였다. 그런가 하면 右翼의 政客들은 中國 重慶의 臨時政府가 이미 五個聯合國의 正式承認을 얻었으며, 美國으로부터 10億달러의 援助借款을 얻었고, 10萬에 이르는 獨立軍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臨政人士들이 곧장 入國하여 內외의 支持를 받는 合法政府를 樹立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⁷⁾

그러나, 韓民族近代史의 受難의 歷史와 國際政治現實의 一般的 傾向을 잘 알고 있던 民世는 二次大戰에서 聯合軍의 勝利로 解放을 맞게 된 當時의 韓半島에는, “美國으로 代表되는 資本的 民主主義와 蘇聯이 主導하는 共產主義가 三八線을 사이로 險惡한 對立狀態”⁽⁸⁾가 持續되고 있음을 看破하고, 8·15 解放 以後 韓民族은 “또다시 不幸하게 어느 한 나라의 獨占支配이나 美·蘇·中·英 等の 聯合四個國의 共同한 獨立保障 및 援助가 있어야 하느냐의 問題”⁽⁹⁾에 直面해 있다고 判斷하였다. 「解放」은 分明 民族앞에 希望을 던져 주었던 歡喜의 瞬間이었다. 그러나 國民들은 半信半疑의 모호한 意識狀況에서 方向을 잡지 못한 채, 政治指導者들만 바라보고 있었고, 期待했던 政治人들은 紛糾과 分裂을 끝없이 계속하여, 政局은 한마디로 뚜렷한 方向을 잡지 못한 채, 昏迷狀態를 거듭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狀況에서 民世는 現段階에서 時急한 案은 朝鮮의 統一民族國家를 하루 바삐 完成하여 안으로 昏迷에 빠진 大衆을 誘導集結하고, 밖으로 聯合國과의 國交를 신속히 調整하여 民族千年의 雄大한 再出發을 해야 한다고 力說하였다. 그래서 民世는 韓民族이 強大國의 分割占領으로 統一을 이루지 못했던 폴란드의 前轍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內部에서 民族의 合作團結이요, 둘째, 外部에서는 國際列國의 友好的 共同保障을 實踐하는 것이 가장 時急한 課題임을

(7) 安在鴻, 「韓民族의 基本進路」(서울: 朝陽社, 1949), pp. 7-38. 以下 「基本進路」로 表記함.

(8) 「基本進路」, p. 39.

(9) 「基本進路」, p. 36.

闡明하였다.⁽¹⁰⁾ 그리하여 民族內部的 團結을 위해서는 韓民族 固有的 政治 哲學인 <다사리理念>을 회복시켜, 民族主義, 社會主義, 그리고 民主主義를 綜合, 實踐해야 하고, 對外的으로는 從來의 抵抗一邊到에서 脫皮한 民族自存의 論理를 어느 特定強大國에 偏向됨이 없이, 平和共存的인 國際關係에서 定立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2. 鬭爭의 歷史觀

熱烈한 民族主義 史學者였던 民世는 “人類의 歷史는 鬭爭의 歷史이다”⁽¹¹⁾ 라고 規定했다. 그는 政治家이기 以前에 國史研究에 盡力했던 學者로서 “歷史는 我와 非我的 鬭爭”이라고 말한 丹齋 申采浩의 鬭爭의 民族史觀에 크게 影響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¹²⁾ 그런데 民世는 이같은 鬭爭으로서의 歷史를 세 가지의 形態로 分類하여 說明하였다.

첫째, 人間의 自然征服 鬭爭, 둘째, 歷史發展의 各 段階에 따른 種族, 혹은 部族間의 生存鬭爭, 民族 혹은 國家間의 鬭爭, 셋째, 社會發展史에 있어서의 階級鬭爭이 바로 그것인 바, 民世는 人間의 自然과의 鬭爭은 別問題로 하고, 무엇보다도 國際的인 民族生存의 鬭爭과 國內的인 階級鬭爭과는 항상 그 成敗의 比重關係에서 그 取舍가 選擇되는 것이 절실하게 要請됨을 특히 強調하여 그 關係의 多樣함을 다음과 같이 詳論하였다.⁽¹³⁾

(1) 階級·民族鬭爭同時型⁽¹⁴⁾

이것은 自國民의 總合的 力量이 國內的 革命과 國際的인 民族鬭爭을 併行할 자신이 있는 경우로서, 歷史的으로 代表的인 例는 프랑스 大革命을 들 수 있다. 당시의 情況으로서는 自由와 平等을 지향하는 第四身分階級の 民權革命은 不可避한 것이었으며, 革命直後의 프랑스는 전유럽에 있어서 高度의 文明과 財力, 그리고 強力하게 組織된 軍事力과 나폴레옹과 같은 出衆한 大戰略家의 存在 等으로, 설사 國內的인 革命이 있었다 해도 外部로부터의 衝擊과 干涉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10) 「基本進路」, p. 36. 民世의 當時 國內外的 狀況에 대한 認識은 「新天地」(1948. 7月號)에 실린 “民政長官을 辭任하고: 岐路에 선 朝鮮民族”에 詳細하다.

(11) 「基本進路」, p. 87.

(12) 千寬宇, “民世安在鴻年譜,” 「創作과 批評」(1978, 겨울), p. 231 參照.

(13) 以下 「基本進路」, pp. 87-90의 요약.

(14) 以下 네 가지의 類型은 讀者의 理解를 돕고자 筆者가 民世의 說明에 留意하여 命名한 것임.

(2) 國際干涉 不可能型

이것은 國內의 階級鬭爭이 불가피하고, 당시의 國際狀況이 介入하여 그것을 妨害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 代表的인 例는 1917年의 러시아革命이다. 레닌이 볼셰비크黨의 主導로 革命이 進行되고 있던 當時의 國際環境은 一次大戰直後였기 때문에 英·美·佛·獨 等 列強諸國들은 모두 疲폐한 상태에 있었고, 워낙 龐大한 領土는 戰略的으로 急襲하기에 매우 곤란한 地理的 條件을 提供하였던 것이다.

(3) 第三國 制御型

이것은 國內의 階級鬭爭이 역시 不可避하지만, 그것을 妨害하는 어느 一國이 있을 때 이것이 第三의 勢力(들)에 의해 牽制·相殺되는 경우이다. 그 代表的인 例로는 1911年의 武漢革命以後 21年동안의 中國을 들 수 있다. 中國이 軍閥間의 爭鬭, 國·共對決 등으로 內亂과 같은 狀態에 있을 때, 日本帝國은 1937年의 蘆溝橋事件을 계기로 中國本土를 併呑하려고 했지만, 中國大陸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第三의 美·英·佛·蘇 등이 함께 介入하여 日本의 獨占支配를 抑制하였다. 이동안 中國은 共產黨에 의한 階級革命을 持續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國際干涉 誘導型

이것은 國內의 鬭爭이 만드시 外國의 干涉과 侵略·支配를 誘發하는 경우이다. 韓國에 있어서 1894年의 東學亂은 그동안 쌓여 왔던 國內의 社會的 矛盾이 暴發하여 일어난 內部改革運動이었지만, 日本과 淸의 同時介入을 誘發하여 淸·日戰爭의 導火線이 되었고 마침내는 韓半島가 日本의 獨占支配下에 들어가는 結果를 낳았다. 이것은 國際干涉 誘導型의 代表的 例라 하겠다

以上과 같이 民世는 世界史를 鬭爭의 歷史로 整理한 다음, 韓民族史에 나타난 民族鬭爭과 內部的 階級鬭爭의 關係는 어떠한 類型일 것인가를, 歷史의 特殊性과 一度性에 留意하면서 檢討하였다.

그는 韓民族의 歷史를 회고하는 가운데, “과거 수천년의 階級的 對立, 分裂, 또는 差別, 抑壓을 止揚清算함을 요하는 時期가 屢 많았으나 客觀적으로나 主觀적으로나 한번도 그것이 實現되지 않고 近世까지 왔다”(15)고 말하였다. 民世의 이와같은 말은, 그가 마르크스의 階級鬭爭理論이 一面的 經濟決定論이고 마르크스 個人의 病理的인 限界性이 있다고 批判하고는 있지만

(15) 「基本進路」, p. 92.

(後述함), 韓民族의 歷史도 固定된 支配階級에 의한 一方的인 價値獨占의 과정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朝鮮 哲宗 13年의 晉州民亂이나 三政의 亂은 三南地方과 關北의 農民, 혹은 常民들의 一大叛亂이었으나 全國的인 團結과 指導者의 貧困으로 血淚의 記錄만 남기고 失敗하였다. 또 高麗時代의 賤民의 亂中에서 李通, 萬積의 亂은 鬪爭의 主體가 奴婢로까지 擴大되었던 特例로서 「賤籍」을 불사르고 「使三韓 無賤人」을 主張했던 階級解放鬪爭이었으나, 橫的 組織이 未備했던 탓으로 徒勞에 그쳤던 것이다.

이와같이 民世는 韓民族史上, 階級間的 葛藤과 그 解放鬪爭은 分明히 存在했었지만, 어느 하나도 全國的인 社會改革을 成功시킬 만한 支配階級の 沒落이나, 庶民 惑은 下賤階級の 政治的 昂揚을 實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傳來의 門閥兩班으로서의 支配階級の 血統은 東學亂 當時에도 아무런 요동없이 持續되었으며, 겨우 日帝時代에 와서야 他律的인 不可抗力으로 支配階級の 政治的, 經濟的 沒落과 民族全體의 歷史斷絶과 敗亡이 함께 나타나는 民族的 悲劇으로 나타났다고 評價하였다.⁽¹⁶⁾ 이렇게 民世는 韓民族史에 관한 限, 民族鬪爭과 階級鬪爭의 關係에서 民族的 死活問題가 더 決定的인 條件이 되기 때문에 韓民族 內部的 鬪爭은 언제나 國際的 與件이라는 큰 比重의 變數에 影響을 받아서 全社會的 強革은 커녕 오히려 全民族의 共滅만을 招來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民世는 “國際侵略 또는 國際重壓이 激甚하여 國內的인 社會構成員이 國際鬪爭으로 總集結함을 요하는 경우, 즉 民族的 또는 國民的 存立을 위태케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國內鬪爭은 適正止揚하여 民族鬪爭으로 全力重을 會通歸一케 함을 要請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歷史의 全過程에 비추어서도 結論지을 수 있고, 또는 그때 그때의 具體的, 現實的 客觀條件의 洞察檢討에서 歸納됨을 要하는 者이다.”⁽¹⁷⁾ 라고 생각하였다.

3. 民族主義의 理論과 實際

民世는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1945年)의 冒頭에서 民族 또는 民族主義에 대한 그의 見解를 밝히고 그것과 연관된 韓民族과 其他 外國의 民族史

(16) 「基本進路」, p. 93.

(17) 「基本進路」, p. 88.

를 比較的 詳細하게 檢討하였다.⁽¹⁸⁾

우선 그는 民族 또는 民族意識이 西洋學界의 一般的 認識과는 달리 資本主義의 所産이 아님을 主張하고, 19世紀 以前 獨逸의 地方的 愛國主義에서 볼 수 있었던 閉鎖的인 民族主義는 排擊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할 때, 國際的 協同과 平和의 共存을 前提로 하는 民族自存의 主體的인 民族主義는 提唱되어야 할 마땅한 理由가 있는 것이라고 強調하였다. 民世는 「民族」이란 同一血緣體, 地域協同體, 運命共同體의 세 가지 特性을 가진 集團을 밝히고, 이러한 「民族」이 國際社會에서 意味있는 構成員으로 存在하기 위해서는 血統이나 地理的 條件에만 얽매이지 않는 文化的 個體, 即 共同文化體를 指向하는 것이 現代的 狀況에서 가장 重要한 要件이라고 생각했다. 民世는 따라서 民族主義를 論할 때는 그 文化的 特性과 傳統에 留意해서 政治體制와 民族性과의 相互關聯性을 파악하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 民族의 性格은 그 歷史的 傳統을 基軸으로 하여 內外的 狀況과 긴밀한 關係를 가지면서 점진적으로 生長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인 唯物史觀에 의한 社會發展圖式을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常識밖의 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諸國家 相互間의 關係에 있어서 그 運命과 行爲는 諸國家精神의 一定한 性格의 顯然한 辯證法이다」라는 헤겔의 말이 示唆하는 바와 같이 한 民族의 歷史가 天下唯一의 獨存하는 것이 아니고 東西諸國이 聯立하는 가운데 相互關係되는 狀況에 함께 있음을 認識하고, 새로이 主唱하는 民族主義는 沒我的인 國際追隨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嚴正한 自己批判과 歷史的 傳統에 대한 科學的 認識 그리고 國際社會와의 適正한 交流를 前提로 할 것이 要請된다고 主張하였다. 그리고 그는 民族主義가 歷史上 어떻게 變化해 왔는가를 各國家別로 比較·檢討하였는데 우선 蘇聯은 마르크시즘, 레닌이즘에 의한 共產主義革命을 成就하였으면서도 계속해서 「소비에트 民族主義」를 高揚시켜 왔다는 것이다. 즉, 1812年代에 나폴레옹의 侵略軍에 對抗하여 싸웠던 러시아인들과 그의 指導者 「쿠쓰초푸」將軍을 ‘民族的 英雄’으로 禮讚했으며, 「레닌」도 항상 民族的 自負心을 力說하였고 民族間의 相異性은 언제까지라도 계속되며 勞動階級の 獨裁가 實現될 時期에도 存續할 것이라고

(18) 安在鴻,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民友社, 1945), pp. 6-19의 內容要約. 以下 「新民族主義」로 表記함.

말했음을指摘하였다. 따라서 民世는 러시아의 경우에서도 民族主義는 既存의 文化傳統속에서 形成된 歷史的 產物이기에 아무리 共產主義의 前衛國家일 지라도 자기의 同胞와 祖國이 異國의 軍隊에 의해 殺戮·蹂躪당하는 것을 보고도 어설픈 國際主義로써 萬國의 勞動者여 云云하지는 않았었다고 強調하였다.

다음으로 民世는 西歐의 경우, 英·佛의 民族主義와 獨逸의 民族主義는 아주 對照的인 性格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英國은 海洋國家로서 일찍부터 中央集權의 統一國家로 成長하여 西歐文化의 絶頂期를 스스로 創造하였고 프랑스는 파리를 中心으로 한 統一國家의 體制를 일찍부터 갖추어 누구라도 부러워 할 정도의 文化를 꽃피웠는 바, 이들 兩國의 歷史的 經驗을 概觀할 때 英國과 프랑스는 〈國家〉가 〈民族〉보다 앞서 確立되었기 때문에 民族主義는 安定된 가운데 점진적으로 發展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比較해서 獨逸은 自然的인 境界도 不分明했고 國家經營의 核心勢力도 集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英國과 프랑스가 國家體系를 確立하고 民族의 發展을 위해 努力할 때 地方的으로 優勢한 〈民族〉을 하나의 國家로 統一시키기 위해 英國과 프랑스를 모방하기 시작할 뿐이었다고 民世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獨逸의 努力은 뿌리 깊은 地方的, 分權의 民族主義의 傳統 때문에 成功하기 어려웠고, 마침내 獨逸의 民族主義는 〈大獨逸〉의 理想을 追求한다는 名分에서 情熱的이고, 感情的이며, 排他·獨善的인 理想主義로 轉落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民世는, 「루터」의 宗教改革에서부터 「랑케」의 獨逸史改作, 「피히테」의 「獨逸國民에게 告함」, 「헤겔」, 「리스트」를 지나 「비스마르크」의 帝國時代에 이르기까지의 獨逸史의 展開는 모두 自然스러운 生長發展이 아니었고 이른바 「暴風怒濤」속의 激情에서 비롯된 人爲的인 「企圖」였기 때문에, 독일의 民族主義는 자신은 물론 國際的인 平和伸張에 貢獻하지 못하고 오히려 國際的인 禍根의 根據단 提供한 結果가 되어 버렸다고 批判하였다.

그리고 民世는 日本의 民族主義는 그 出發부더가 大陸經略과 世界制覇를 呼號하던 것이었으므로 英國과 같은 自然環境에서 形成된 獨立自存의 좋은 氣風은 쉽게 誇大 내지 自大의 方向으로 흘렀고, 마침내는 西歐의 資本主義諸國이 보였던 侵略的, 征服的 意慾을 그대로 摸倣하였다고 主張하였다. 民世는 特히 앞으로 日本이 傳統的인 國策으로서의 「大陸經略」을 포기하지 않

는 한, 大陸諸國과의 葛藤이 必然的인 歸結이 되는 바, 現今에 있어서 日本의 民族主義는 國際平和와 協同의 方向으로 修正, 再出發함이 절실하게 要請된다고 보았다.

요컨대 民世는 <民族>은 血緣, 地域을 바탕으로 形成된 運命共同體이지만 그것이 追求해야 하는 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는 이와같은 個體的 特殊性을 克服하고, 人類普遍的 價値와 世界平和를 지향하는 次元에서 展開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最近의 現代史의 經驗을 되새길 때 民族主義는 特定の 政治思想이나 理念에 의해 왜곡되고 誤用된 경우가 많은 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民族主義는 嚴正한 自己批判을 前提로 歷史, 文化에 대한 科學的 認識, 國際社會와의 交流를 冷徹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形成되어야 할 것임을 論하였던 것이다.

III. 民世의 「朝鮮哲學體系」

民世의 「新民族主義」는 韓國의 傳統的인 民族思想과 西洋의 社會主義理念을 調査하고자 했던 政治思想으로서, 무엇보다도 「物心兩元論」, 「大一道의 哲理」, 「다사리理念」, 「開闢會通論」, 「萬民共生論」으로 構成되는 그의 「朝鮮哲學」을 바탕으로 形成되었다. 그래서 本章에서는 그의 著書,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1945年)에 나와 있는 「朝鮮哲學」에 관한 그의 所論을 要約하여 살펴 보겠다.

1. 「物心兩元論」

民世는 韓民族이 最初로 發見한 世界觀은 비, 씨, 몬의 哲理였다고 보았다.⁽¹⁹⁾ 그에 의하면 우선 비는 虛空이니, 萬有가 이 곳에서 生成한다고 한다. 萬有의 始作이 비로써이니 이것은 곧 虛空내지 本無에서 萬有가 生成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光明이 비에서 일고 통하며, 萬物이 비에서 胚胎되고 生成되니, 빛, 발(光), 배어(孕)는 다같은 語源에서 나온 말이다. 民世는 특히 光明이 밝히고 神明이 밝이며 太陽이 밝일진대 韓國에서 古代國家를 불(弗, 伐, 火, 喙)이라고 칭한 것은 이같은 비의 哲理가 實際 生活속에

(19) 「新民族主義」, p. 20. 以下 物心兩元論에 對한 說明은 同書 pp. 20-22를 參照. 以下 傍點은 原本에 있는 것을 옮긴 것임.

그대로 표현된 증거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新羅의 始祖「赫居世」는 光明理世의 뜻으로 「불거늬」의 吏讀이고 「弗矩內」는 「함의 내」의 寫音이니, 이것은 곧 “神의 治世”라는 意味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씨(씨)는 種子이다. 그리고 虛空이 世界의 外延이라면 種子는 그 中核이다. 民世는 이런 뜻에서 朝鮮 最初의 出發은 阿斯達社會에서부터인 바 阿斯達는 곧 “아씨당”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씨의 原義는 原母 또는 原種이니 萬象의 出發이 곧 씨입을 말해 준다고 한다. 韓國 古代의 說話에 仙桃聖母, 西述神母가 등장하고 聖母天王이 民俗信仰의 對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이와같은 씨의 哲理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몬은 物質을 일컫는 말이다. 民世는 世界生成의 物質的 側面은 모두 이 몬에서 出發하였다고 보았다. 集結이 모음, 혹은 모듬이고, 浮遊放散되는 物質의 殘滓를 몬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이러한 理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民世는 韓民族이 처음으로 國名이나 族名으로 쓴 말이 밝이라고 主張하고 그 예는 白山, 白岳, 檀君, 夫餘等 수없이 많으며 이것은 곧 物心兩元의 哲理가 生活속에 그대로 反映된 것이라 했다. 특히 夫餘朝鮮은 즉 發國인 바, 夫餘는 비어의 寫音이며 「山海經」에 白民國이라고 記錄된 것은 우리 民族이 光明과 神明을 自負한 太白故國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요컨대 民世는 韓民族이 古代로부터 白, 혹은 夫餘族이었다는 것은 모든 歷史의 出發부터가 意識(心)과 事爲(物)의 綜合으로서의 비의 哲理에 바탕을 두고 展開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民世는 헤겔이 말한 바 있는 「神과 自然과 사람의 統一된 形態」로서의 歷史發展이 韓民族史에도 分明히 存在함을 指摘한 것이다.

2. 「大一道論」

民世는 宇宙生成의 三元으로서 天, 地, 人을 말하였는데 이 原理는 우리 固有의 숫자 헤아림에 하나, 둘, 셋에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主張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 民族의 宇宙觀 내지 世界觀은 「天」의 概念에서 出發하고 그것은 곧 하나, 卽「一」이 內包하는 哲理와 一脈相通한다는 立場에서 「大一道論」을 말하였으니, 그 內容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²⁰⁾

(20) 以下「新民族主義」, pp. 22-24 參照.

(1) 한, 一, 一天

民世에 의하면, 一은 한이며, 한 卽 한을로서 數의 元始이자 동시에 大世界로서 의 뜻이다. 즉, 한은 큰 것으로 最大이며 無窮大이니 이는 大宇宙와 同一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大宇宙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唯一하며, 따라서 한은 最大요, 唯一이요, 最尊이니 「大一」의 概念은 「大一神」의 哲學과도 통하는 것이다. 民世는 이러한 「大一道」의 哲理은 一卽多, 一途萬象 萬有一源을 象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森羅萬象을 認識하는 宇宙觀이요, 世界觀이며, 人生觀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大一道」의 哲理은 歸一會通, 大同社會를 指向하며 그것은 또한 모든 作爲와 運行에 內在하는 法測이라고 하였다. 또 한은 하나이며 나(自我), 낳다(出生)와 통하는 것이니, 이는 곧 나의 存在란 萬有(一)가 있음으로써 그 價値가 주어진다는 哲理을 內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2) 들, 二, 二地

民世는 二는 들이니 들 卽 들이라고 했다. 民世에 의하면, 들은 現代語로 原野의 뜻이지만, 古語에서는 大地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그 大地는 땅이니 이것은 원래 達의 뜻으로 阿斯達 以來의 「達」에서 淵源하는 것이라 했다. 그런가 하면 周易에서 坤厚載物, 萬物資生을 말한 것도 萬物이 땅에서 存在하고 있는 大地의 本來的 機能을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다. 들 역시 入의 뜻도 있기 때문에 大地에는 萬物이 담겨져 있음을 象徵하는 것이다.

(3) 셋, 三, 三種

民世는 三은 세, 혹은 셋이니 씨 혹은 씨앗, 卽 種子和 같은 뜻이라 하였다. 그는 여기서 一天, 二地 다음에 三種, 卽 셋, 씨앗을 配置한 것은 天地 다음에 반드시 萬物이 胚育되어야 한다는 宇宙本然의 順序를 그대로 表現한 것으로 이러한 宇宙觀은 매우 탁월한 朝鮮哲學의 一面이라고 主張하였다. 나아가 씨는 쓰임으로 用을 이르는 말이니 天地는 種이 있음에서 그 作用이 可能해짐을 말한 바, 또 사람은 씨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人生, 人間이 있음으로 해서 天地는 主人을 갖는다고 말했다. 즉 「大一道」의 哲理에 있어서 사람(人間)은 先國家的 存在로서 宇宙에 沉存하며 生活하는 本體이며 民世가 主張하는 人類大同主義나 世界主義는 모두 이러한 人間本位의 世界觀에서 비롯된 것이다.

3. 「다사리 理念」

民世는 上述한 바와 같은 大一道의 哲理에서 밝혀진 宇宙生成의 根本原理에 따라 韓國固有의 哲學體系에는 萬物과 人間世界를 統理하고 治世하는 原則이 自然히 發生한다고 생각한 바, 그것이 곧 <다사리>理念이다. 이 <다사리>理念은 自我와 國家가 萬民共生の 普遍原理에 따라 自動的으로 合一되는 根本理致를 밝혀 주는 韓國 固有의 國家哲學이자 民主主義原理라고 民世는 밝히고 있는데, 그 자세한 內容은 넷(四)과 다섯(五)에 담겨진 意味를 說明하는 가운데 나타난다.⁽²¹⁾

(1) 넷, 四, 四生

民世에 의하면 네 혹은 넷은 나 혹은 나잇 즉 出生과 같다. 民世는 우리 말에서 自我(나)와 出生(낳다)과 進取(나아가다)가 모두 나의 語彙로 된 것은 朝鮮哲學이 優秀함을 보여주는 좋은 例라고 지적하고, 萬有의 出生은 自我實現의 生命意慾에서 비롯되며 我意가 있어 出生하였고, 出生했기 때문에 自我인 것이므로 出生과 我意는 본래 表裏本末의 關係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나라는 現代의 意味의 國家이며 그것은 나인 自我와 自我의 生命意慾을 根本으로 한 民族協同體로서의 精神的 集結體임을 主張하면서 나와 나라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詳論하였다.

① 나는 生活理念의 實際 把持者요, 執行者이다. 나라에 대하여는 나의 個性으로서 自由가 있어야 하고, 外地나라에 대하여는 集團的 自我로서의 나의 나라의 自由가 있어야 한다.

② 나인 自我의 理念을 經(經)로 삼아 國家가 生聚, 生存, 生成, 進取하는 것이요, 모든 法과 制度가 自我理念의 具現이요, 여기에 참으로 自由가 있다.

③ 따라서 自我와 個我를 無視沒却한 機械的인 全體主義는 이러한 道理를 蹂躪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自由와 參劃이 全然無視되는 帝國主義的 侵略 國家도 上記와 같은 大義名分으로 排擊된다.

④ 國家는 意識을 基礎로 形成된, 단순한 行政的인 機具가 아니다. 따라서 나라와 나는 外延이요, 核子로 合一不可分한 것이다. 나 卽 나라, 나라 卽 나의 境地가 여기서 나온다.

(21) 以下「新民族主義」, pp. 24-28 參照.

⑤ 이러한 理念은 個即全, 一即多, 大即一의 理念을 말한 것으로, 一個人을 國家의 受動的인 器具로 여기는 外來의 그릇된 思想은 改正되어야 한다.

⑥ 이를 總觀하건대, 위에 하늘(한날, 天)이 있으니 大世界의 大經이요 아래에 나라가 있으니 地上最高的의 體現이다. 나아가서 나는 世界(우리)와 나라의 核子이다.

요컨대, 民世는 國家(나라)는 精神的 集結體로서 그 構成員인 各個人의 自由意志의 具體的인 表現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國家의 모든 法과 制度는 自由意志의 反映이며, 그렇게 될 때 各個人은 참으로 自由로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民世의 國家觀은 나라와 나는 外延과 核子로서 相互不可分의 合一關係에 있음을 確認하는 것이며 헤겔의 國家哲學과도 一脈相通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民世는 또 이러한 國家觀에 덧붙여서 韓民族의 경우는 國家概念보다는 民族(겨레) 概念이 우세한 立場에 있음을 말하고 民族을 뜻하는 겨레는 韓民族의 文化史에 있어서 先國家的인 概念으로 古代 部族聯合國家 以來의 所産이라고 主張했다. 그에 의하면 겨레는 결리움에서 編成이요, 組織이며, 겨름에서 反抗이요 抗戰이기 때문에 韓民族이 生存協同하는 自衛의 過程에서 안으로 잘 결리어서 總力을 集結하고, 밖으로 對抗하여 外部의 侵略을 막아 내어 나의 나라를 守護하는 것이 民族國家形成의 가장 重要한 課題라고 하였다.

(2) 다섯, 五, 五攝理

民世는 五는 다섯이니 다섯이요 攝理, 곧 治理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天象界와 自然界의 森羅萬象은 스스로 瞭然한 秩序가 있어 混亂이 없는 것은 그 안에 內流圓通하는 一大攝理가 罔연히 作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이 곧 <다사리> 理念이 成立하는 所以인 바, 宇宙統理의 法則이 人生社會에 反映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民世는 이러한 <다사리> 理念을 實踐하고자 했던 韓民族의 歷史를 例를 들어 說明하였다. 即, 「山海經」에 大人市의 記錄이 있는 것은 古代에 大人의 會議가 있었음을 想定케 하며, 夫餘, 百濟, 高句麗에 諸加評議가 있었음은 麗末本紀에 「群公」의 文字가 있는 것으로 確認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新羅의 建國이 六部人民의 關川上에서의 會議에서 由來한 것과 같은 法俗이 古代震方諸國에 共通의인 것이었음은 여러 文獻이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다사리>는 漢字로 <誠>이

더 吏讀로는 〈和白〉이다. 民世는 이것을 說明하여, 〈誠〉은 그 字義로서 곧 〈咸言〉이니 이것은 萬民이 모두 發言權이 있음이요(萬民總言), 〈和白〉은 다사리의 表義文字로서 그 實踐方法은 萬民이 다사리어 國政에 總意를 表明하는 것이요 目的은 萬民共生의 道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다사리〉理念을 바탕으로 民世는 韓民族 本來의 政治理念은 〈萬民總言〉과 〈大衆共生〉이라는 民主主義 原理에서 生成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民世는 이러한 〈다사리〉理念이 強暴僭越과 跋扈, 亂動을 禁制하고 平靜安寧한 國家社會로서 萬民共生·大衆共榮의 理想鄉을 追求하는 것이 分明하지만 韓民族史의 古代에서는 下層階級을 無視한 貴族階級에 의해 獨占되었던 民主主義로 展開되었기 때문에, 現代에 있어서는 마땅히 全民衆의 人 政治理念, 즉 新民主主義로 昂揚, 發展되어야 한다고 論하였다.

4. 「開闢會通論」

民世에 의하면 「開闢會通」은 다른말로 하면 止揚綜合이다. 그는 여덟과 아홉에서 이 開闢會通의 哲理를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하고 한국도 이제 思想이나 國際關係에 있어서 開闢會通의 原理에 의해 再定立되어야 함을 力說했다.⁽²²⁾

(1) 여덟, 八, 八開闢

여덟이니 여덟이요 여덟이다. 「여덟」은 開闢이다. 一開一闢은 歲功의 成就되는 바이고 「여덟」은 損益이니 一損一益에 天下가 治安하는 것이다. 開闢變通, 損益健順은 易理의 元本이고 老子 또한 天門開闢을 말하였으며 獨逸의 헤겔도 止揚의 哲學原理를 論한 바 있으니, 民世에 의하면 止揚은 곧 開闢으로 위로는 天理의 消長함이요 아래로는 人事에 停滯함이 없으니 止揚變通의 如否가 人世成敗의 開闢으로 決定된다. 따라서 民世는 現下, 國家의 再健이 안으로는 모든 思想과 밖으로는 모든 列國과의 利害가 最善으로 開闢會通, 止揚損益되어야 할 때이니, 民族主義와 社會主義 各陣營은 이 점을 冷靜하게 考慮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2) 아홉, 九, 九會通

九는 아홉이니 「아홉」은 綜合 또는 會通으로 「아홉름」과 같다. 身體는 몸

(22) 以下「新民族主義」, pp. 31-35 參照.

이니 ㅁ은 「모음」이다. 宇宙의 物質이 「모음」으로 내 ㅁ이 되었고 위로 先民先祖의 血統이 「모음」에서 내 ㅁ이 생겼으므로 내 ㅁ은 수많은 血肉이 나에 이르러 凝結된 存在이다. 또한 心은 「마음」이니 「마음」은 「 많음」과 같다. 民世는 大宇宙의 大意識은 그 「마음」의 淵源이며, 수많은 先民先哲의 心志意圖가 流轉集注하여 나의 「마음」이 되었으니, 檀君, 東明聖王, 乙支文德, 李舜臣과 李通, 萬積과 孔子, 釋迦와 심지어 伯夷와 盜賊 등이 「 많음」으로 「마음」속에 多樣하게 凝集된 것이라 하였다. 요컨대 民世는 모든 것이 歷史의 集結이요, 社會의 共同이며 이미 會通 또는 綜合인 바, 國家運營의 變動과 社會思潮의 交流는 模倣과 移植과 羅列에 그쳐서는 안되고, 반드시 綜合會通하여 自己의 特殊情勢와 世界狀況이 지혜롭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民世는 또 會通綜合에 관한 各國의 先例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우리 先民들은 唐宗以來的 漢文化를 輸入하는데 있어, 開闢, 止揚, 會通, 綜合의 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模倣하기만 하였고 程朱學의 輸入에서도 그러하여 李朝末期의 歷史를 그르켰다. 日本은 自然의 好條件으로 民族의 精力을 蓄積한 바 있어, 明治維新으로 西洋文明을 止揚, 會通하는 데에 일단 成功하였다. 그러나 大正, 昭和時代에는 模倣과 自大, 放漫으로 그것을 昇化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國家民族의 破滅단 招來하였다. 러시아人は 1861年대에 特殊한 歷史와 狀況을 認識하여 굳이 西歐先進國家를 追隨하지 않고 무리없이 會通綜合의 길을 걸었다. 1917年 3月 밀류코프의 自由主義革命, 五月의 멘세비크革命, 十月의 볼세비크革命, 스탈린의 新經濟政策을 거치면서 소비에트民族主義로 여과되어 온 것은 止揚會通의 常道를 걸어 온 때문이다.

5. 「萬民共生論」

民世는 究極의 政治理念으로 「萬民共生」을 主張하였다. 그는 이러한 萬民共生의 價値는 모든 天體에 골고루 비치는 太陽을 中心으로 한 無窮大의 大宇宙를 形而上學的 天道觀 내지 生命觀으로 하는 朝鮮哲學에서 起源하는 것임을 辯說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萬民共生의 理念도 韓民族 固有의 숫자 헤임말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온(百), 즈른(千), 품(萬), 짚(億)에 대한 그의 說明은, 圓眞美善의 次元에서 나오는 最大善으로서의 萬民共生論이 西洋의 古代 그리스 哲學傳統의 眞善美의 價

值概念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3)

(1) 온, 百, 百圓通

民世는 百은 온이니 全具全이라 하였다. 온 테를 골고루 비치는 太陽이 恒久인 生命力과 諸法則의 主體라고 할 때, 그것을 中核으로 時空을 초월하여 無窮大로 퍼져 있는 것이 그대로 大宇宙이다. 이것이 곧 朝鮮哲學의 形而上學的 天道觀이요 神觀이며 生命觀인 바, 韓民族에 있어서 全體와 部分과의 調和를 추구하는 萬民共生の 原理야 말로 政治究極의 方式이라고 民世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百의 온은 圓通具全을 表現하는 哲理로서 具全圓通이 모든 價值體系의 基本이며, 이러한 온의 概念은 곧 諸價值를 統合하는 全의 概念으로서, 古代 그리이스의 最高價值였던 眞善美는 이러한 全, 혹은 圓의 概念을 缺하였다고 論하였다.

(2) 즈믄, 千, 千眞

民世에 의하면 千은 즈믄으로서 참에 좃음이니 眞을 意味한다. 그리고 眞은 實에 따르고 僞는 虛에 따르며, 忠은 眞에 가까우므로 忠實이 되며 誠實과 같다. 아무 것도 虛妄한 것이 없는 狀態가 곧 眞의 境地인 것이다.

(3) 곱, 萬, 萬美

民世는 萬은 곱이니 곱은 곱로서 美를 일컫는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均濟함에 美가 있으니 곱고로요, 調和에서 美를 이루니, 온과 참다음에 美인 곱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4) 찰, 億, 億大善

民世는 億은 찰이니, 찰은 善이요, 至善이라고 하였다. 民世에 의하면 自然界에 있어서 日月星辰의 큰 것으로부터 草木昆蟲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化育運行의 攝理中에서 다사리는 것이니 善이며, 人生社會에 있어서 男女老少와 貧富貴賤의 差別을 두지 않고, 具全, 誠實, 均濟, 調和를 이루도록 하는 萬民共生, 大衆皆樂의 <다사리>國家를 目標로 하니 이것은 곧 至善, 大善이다.

이것은 독일의 헤겔이 國家를 絕對善으로 規定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民世는 獨逸은 自國家 自體가 絕對的 임을 主張한데 비하여, 여기서 말하는 至善으로서의 <다사리>國家理念은 國家와 世界를 모두 至善에 두고 있

(23) 以下「新民族主義」, pp. 35-38 參照.

는 점에서 다르다고 區分하였다.

요컨대, 萬民共生の 理念은 圓眞美善의 宇宙理致에 따른, 全體와 部分의 調和를 追求하는 道德的 價値로서 最高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民世는 바로 이러한 立場에서 萬民共生の 理念이야말로 모든 國家가 追求해야 할 價値로서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IV. 「新民族主義」의 政治思想

1. 「부르조아 데모크라시」 批判

周知하는 바와 같이 1789년의 프랑스大革命은 自由, 平等, 博愛를 旗幟로 發生한 民衆革命으로, 西洋政治史上 一大 轉換點이었다. 革命初期에 프랑스 사람들은 萬人平等의 原理가 낡은 政治, 經濟體制 속에서 누적되었던 모든 不滿과 좌절감을 除去하고 歷史에 새로운 創造的 에너지를 提供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革命은 莫強한 프랑스 政府軍에 의해서 鎮壓되었고 한편으로 自由主義의 問題를 本質적으로 解決하지는 못한 채 끝나 버렸다.⁽²⁴⁾

이렇게 民衆의 革命的 蜂起에 의해서 民主主義의 最高理念을 實踐하려고 했던 프랑스革命의 前後歷史를 면밀하게 觀察한 民世는 프랑스는 “資本의 民主主義의 發祥地임에도 불구하고, 第二次 世界大戰直前인 1935年代에 있어 그의 民主政治는 완전히 少數의 大資本家와 大地主가 獨占支配하는 金權政治로 墮落하고 말았다”⁽²⁵⁾고 指摘했다. 그에 의하면 프랑스는, 第一次 世界大戰 以前까지 産業革命으로 資本을 크게 蓄積하고 많은 海外 植民地를 차지하고 있던 英國과 같이 後進植民國家의 풍부한 資源과 값싼 勞動力을 利用, 世界最大의 債權強國이 되었으며, 國內적으로도 金融業, 鑛工業, 水産 農業 等の 産業資本을 크게 蓄積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巨大한 金融資本과 産業資本 그리고 許多한 土地資本은 모두 약 200個에 달하는 特權家門에 의해 獨占되었으며 따라서 政治는 이들에 의해 左之右之되어 特權階級の 利益을 保護하고 增大시키는 方向으로 이루어져 金權政治의 墮落相을 여지없이

(24) F.M. Watkins, 李洪九 譯, 「近代政治思想史」(乙酉文化社, 1975), pp. 65-66.

(25) 「基本進路」, p. 46.

보여주었다. 民世의 말대로라면, “프랑스本國은 大略 四千萬의 人口를 가졌는데 二百家族만이 全國家의 富力을 獨占하고 있어 모든 政黨과 政治人들이 實은 이 少數의 特權階級の 金力에 따라 움직이는 事態”(26)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金權政治는 마침내 프랑스의 民族主義를 少數의 資本家와 多數의 國民과의 對立, 分裂로 轉落시켜 2次大戰 直後の 프랑스는 人民戰線을 代表하는 「블룸」內閣에 의해 階級鬭爭的 분위기로 險惡했었다. 그 뿐 아니라 나찌 獨逸軍이 侵略했어도 愛國心이 高揚되지 못하는 國家防衛의 癱瘓狀態에까지 이르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1940年 6월에 獨逸軍이 「뮤즈」江에서 大攻撃을 시작했을 때, 「마지노」線을 守備하던 프랑스 兵士들은 士氣를 잃고 投降하기 바빴다. 당시의 「프랑스」兵士들은 독일군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理由를 알 수 없었고 자기들이 진정으로 祖國과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위해서 싸우는지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으며, 그들이 애써 싸워 보아야 200家族이라는 少數의 資本家들에게 享樂만 제공할 뿐 자기들은 더욱 더 困境에 빠지고 아무런 所得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같은 西歐의 自由民主主義의 金權政治化와 연관하여 民世는 西歐政治史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였다.

西歐의 民族主義와 民主主義는 大體 官庭을 中心으로 한 封建貴族과 大地主와 資本家 등이 最初부터 特權階級的 獨占으로 天下의 政權을 壟斷하여 階級的인 抑壓搾取였다가 時代의 進運에 따라 한 걸음씩 小市民, 勞動者 및 農民 등 下層階級的 사람들에게 그 政治參與의 權을 割讓한 소위 資本的 民主主義로 된 것이요, 그러한 社會的 基盤위에 構成된 民族主義로서 (우리의 것과) 그 發生 및 發展의 歷史가 거의 根本的으로 다르다. 吾人은 이제 同一隸屬과 同一解放에서 모든 進步的인 地主와 資本家와 農民과 勞動者가 한꺼번에 萬民共生의 新發足함을 要請하는 歷史的 命題下에 萬民共同의 新民族主義로 新民主主義이다. (27)

2. 마르크시즘 批判

民世는 먼저 마르크시즘의 病理性과 形而上學的 抽象性을 批判하고 現實的으로 韓半島에 共產主義國家가 成立되는 것을 세가지의 理由를 들어 反對하

(26) 「基本進路」, p. 47.

(27) 「基本進路」, p. 48.

었다.

民世는 마르크스의 理論을 올바르게 理解하려면 마르크스라는 한 人間의 人類學的인 生活環境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르크스는 “언제나 어디서나 薄待와 배척을 받는 猶太人이기 때문에 스스로 人類社會 또는 國家社會의 消極的인 側面과 病點을 뒤져내고 摘拔하기에 全理智力을 기울이고 있었다.”⁽²⁸⁾는 점을 記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民世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독일계 유대인으로서 그의 故鄉인 「라인란트」를 떠나 파리, 런던 等地에서 寄留研學하며 “人生을 客苦와 賓窮에 조들리어 不滿과 야속한 속에서 始終한 人物”이였기 때문에 스스로 現存 社會體制의 不合理性을 指摘해 내는 데에 온 精力을 쏟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現實의 屢次 歷史의 흐름을 實踐에 의하여서 온갖 形而上學的 扮飾을 떨어버리고 나의 知識에 意識的으로 攝取되기 始作하였다」고 自述한 바 있다고 民世는 밝혔다.⁽²⁹⁾ 이와같이 民世는 마르크스 自身の 生活環境과 연관된 限界 때문에 마르크스 理論은 하나의 病理學일 뿐 複雜多端한 人類社會의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萬病痛治藥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으로 民世는 마르크스의 理論은 어느 하나의 假說의 名題를 普遍的인 眞理인 양 扮飾하기 위한 形而上學的인 抽象의 結果라고 지적하였다. 即, 마르크스나 그의 同僚 엥겔스의 著述에는 社會科學, 唯物史觀, 辯證法, 階級鬭爭, 革命 等の 用語를 動員하여 이른바 學問에 있어서의 「科學的 認識」을 強調하고 있지만 그것이 一面의 經濟決定論이라는 機械的 公式이나 階級鬭爭의 革命的 方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學問的 用語들은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知的 抽象(intellectual abstraction)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는 現實的인 것을 딱 強調하면서도 도리어 「現實的인 것의 속에서 理念을 구한다」는 誤謬를 범했던 것이다.”⁽³⁰⁾ 마르크스는 항상 「科學的인 研究方法의 嚴密한 適用」과 「人類의 總體的인 知識과의 調和를 保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力說하였지만 民世는 그가 이미 假想한 病理에 대한 一面의 處方을 考究한다는 立場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理論을 어느 狀況이나 問題에 보편적으로 適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28) 「基本進路」, p. 74.

(29) 「基本進路」, p. 74 參照.

(30) 「基本進路」, p. 75.

以上과 같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批判的 理解를 앞세운 民世는 그 스스로 마르크시즘이 勞動者나 農民의 經濟的 平等을 主張하고 있다는 점에는 同意하고 있으나 韓半島에 소련과 같은 마르크스-레닌이즘에 입각한 共產主義 國家가 成立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理由를 들어 反對하였다. (31)

첫째, 現今의 國際政治上에 存在하는 共產主義는 個人的 自由와 國民의 自律性을 無視하는 全體主義이다. 모든 種類의 政治活動은 個人的 生來的 自由權을 無視하며, 共產主義라는 하나의 原則아래, 操作된 多數決에 服從해야 하는 共產主義國家에서의 形式的이며 機械的인 一元化는 靑島政治와 다를 바가 없다.

둘째, 共產主義가 하나의 純粹한 主義나 思想運動으로 未來의 政權을 指向하면서 勞動者·農民大衆의 經濟的 平等을 主張함에는 많은 好意와 共鳴을 갖는 바이지만, 그것이 現下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반드시 無產者階級の 獨裁를 前提로 삼고 있기 때문에 反對한다. 왜냐하면 “資本階級の 特權도, 無產階級の 特權도 容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계급이 層生치 않도록 立法, 治하는 것이 新民主主義의 理念이요 政治” (32)이기 때문이다.

셋째, 永久한 友好親善關係를 維持하려면 關係國 相互間에 完全自主獨立의 立場이 確立해야 하는데, 韓蘇親善의 確保가 要請되는 長期的인 政策展望에서 볼 때 現在의 狀況에서 韓半島에 共產主義政權이 設立되는 것은 不可하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必然的으로 蘇聯의 支持와 後援에 依存하여야 할 것인즉, 그렇게 되면 兩國間的 從屬關係로 나타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3.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

民世는 既述한 바와 같이 西洋의 資本的 民主主義(bourgeois democracy)는 富가 少數의 資本家들에게 獨占됨으로써 諸般政治가 그들의 利益과 意思에 따라 左之右之되는 金權政治(plutocracy)로 墮落하였고 共產主義는 마르크시즘의 理論的 限界를 克服하지 못한 채 反휴머니즘的인 全體主義로 轉落했음을 批判하였다. 그러면 民世의 新民族主義 政治思想의 要諦는 무엇인가? 그는 마르크스의 經濟的 唯物史觀의 限界를 認識하고, 한 國家나 民族의 發展

(31) 「基本進路」, p. 66.

(32) 嚴雨龍(國民黨宣傳部 次長),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 「開關」(1946, 1月), 제73호, p. 55.

樣式은 그 特殊한 性格과 環境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綜合的 唯論史觀을 主張하였고 內部的 矛盾的 蓄積으로 發生하는 階級鬭爭은 韓民族史에 관한 限開闢會通의 辯證法的 過程을 통하여 平和의인 方法에 의해 萬民平等의 超階級的인 國家形成으로 止揚, 昇化될 수 있음을 論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理念을 內容으로 하는 그의 新民族主義 政治思想을 實踐하기 위해서는 全階級, 全職業을 代表하는 議會의 構成과 그에 따른 合法的인 節次가 必須的인 力說하였다.

(1) 綜合的 唯物史觀

獨逸의 哲學者 헤겔은 “世界史는 絕對精神의 自己展開過程”이라는 觀念的 辯證法을 말하였고, 마르크스는 이와는 相反된 立場에서 物質要因에 의한 人類歷史의 展開를 要諦로 하는 唯物論的 辯證法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民世는 이같은 兩人的 學說을 物心兩元論의 哲學的 立場에서 모두 批判하였다.

即, 人間을 포함한 森羅萬象의 存在에 있어서 “意識과 物質은 서로 分離, 對立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物心의 二元的 存在은 항상 相互表裡하여 無限한 持續에서 즐기치게 創作, 發展하면서 一元化하고 있다”⁽³³⁾고 民世는 主張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民世는 自然現象이나 人類歷史에 있어서 意識과 物質은 결코 排他的인 關係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共存하는 物心의 相互關係 속에서 서로 止揚, 綜合되어 마침내는 統一, 一元화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民世는 “人類生活의 全分野에 있어 또는 社會發展의 根本에 있어 經濟的 條件, 즉 生産關係는 단은 偉大한 作用을 하고 있다”⁽³⁴⁾고 말하고, “段階性이 각각 다른, 아직 國際的 單一化하지 못한 現下國際的 事態를 어느 一個國에 적용된 經濟的 唯物史觀의 데안에 一律로 들어 맞히어 規定하고 또 그에 입내내어 解決지으려고 하는 것은 큰 歷史的 過誤의 出發點이 된다”⁽³⁵⁾면서 民世는 階級鬭爭方式에 依存한 解決에 反對하였다. 그래서 民世는 “方法論은 具體的 把握, 그 自身中에 짜여져 있는 것이다”라는 마르크스의 말을 다시 引用하면서, 한 國家 民族의 運命을 決定하기 위해서는 全歷史, 性格, 狀況 等を 總體的으로 파악하여 歷史展開의 올바른 方向을 設定하는 것이 매우 重要한 課題임을 力說하였다. 이와같은 立場에서 民世는 各國 國民

(33) 「基本進路」, p. 76.

(34) 「基本進路」, p. 78.

(35) 「基本進路」, p. 78.

의 歷史上의 運命은 다만 經濟的 唯物史觀 外에,

① 風土自然과

② 客觀的으로 强要되는 古來 및 現在의 國際的 制約關係와

③ 또는 이 兩者로써 許久한 동안 薰成된 그 社會因襲의인 諸條件 等에 따라 條件지게 되는 部面이 자못 많다⁽³⁶⁾

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그의 <綜合的 唯物史觀>이다. 民世는 이렇게 時代, 地理, 環境, 民族的 傳統, 文化 等을 두루 觀察, 分析, 綜合하여 그 속에 內在한 問題點과 特殊性을 看破하고 나서 그 解決策을 마련해야만 歷史發展의 共通性과 社會變動의 一度性을 갖춘 國家를 建立할 수 있다고 主張했던 것이다.

(2) 「다사리理念」의 回復：階級鬭爭의 止揚

民世는 數千年以來의 韓民族史가 淒絶한 對外抗爭과 對內的 階級鬭爭의 間斷없는 連續으로 點綴되었음을 指摘하였다. 特히 民族內部에 있어서의 「階級對立은 嚴然한 歷史上의 事實이다」⁽³⁷⁾라고 闡明하였던 바, 「使三韓 無賤人」의 階級解放運動이었던 高麗時代의 「李通·萬積의 亂」, 李朝時代의 「晉州民亂」(1862年), 「東學亂」(1894年)은 그 代表的인 例라고 했다.

그러나 “前後數千年에 階級社會위에 建設된 非共榮國家인므로 階級的 叛亂도 있음직한 일이었지만은 上代社會에 있어 下賤 惑은 一般庶民階層으로서는 聯絡集結로써 一大反抗勢力을 構成할 機會를 얻을 수도 없이 항상 無爲徒死에 그쳤던 것이다”⁽³⁸⁾라고 말하여 이제까지의 모든 階級鬭爭의 努力은 制度的 拘束, 全國民의 團結과 指導力의 貧困 等の 理由로 失敗했었음을 想起시켰다. 그렇지만 民世는 內部的인 社會矛盾의 解決을 위한 모든 努力과 鬭爭은 다른 어떠한 要因보다도 우리가 처해 있던 國際政治的 環境의 制約이라는 보다 큰 要因에 의해서 成功할 수 없었다는 점을 強調하였다. 그의 表現을 보면 “그러나 그보답도 또 重大한 原因은 西北東南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強大民族의 國際侵略에 因하여 全民族의 反抗鬭爭이 언제나 先決 要項이고, 또 主導課業으로 되어 있어 階級鬭爭에까지 겨룰치 못하였던 것이다.”⁽³⁹⁾ 요컨대 民世는 앞서 말했듯이 韓民族史上 階級鬭爭은 그 內部的

(36) 「基本進路」, p. 78.

(37) 「基本進路」, p. 83.

(38) 「基本進路」, p. 86.

(39) 「基本進路」, p. 86.

要因도 있었겠지만 언제나 國際強國의 干涉을 誘導했거나 그럴 위험성에 直面했었던 理由로 現代의 意味의 社會改革의 革命으로 昇化하지 못한 채, 體系와 組織이 缺如된 反抗으로서의 「우통」⁽⁴⁰⁾에 불과했었다고 보았다.

그러면 民世는 새로운 民族國家를 建立하려던 8·15解放 直後의 狀況에서 이같이 持續되어 온 階級鬭爭의 要素를 어떠한 方法으로 克服하려고 했는가? 이에 대한 民世의 對答이 곧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인 바, 兩者는 그의 政治思想에 있어 表裡關係에 있는 同意異語이다.⁽⁴¹⁾ 그는 〈다사리理念〉의 現代의 回復로 階級鬭爭을 止揚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그의 이러한 思想形成의 背景, 即 民世의 8.15解放直後에 대한 政治, 經濟的 狀況認識은 어떠한가? 이것은 當時 理念의 葛藤關係에 있었다고 할 夢陽의 狀況認識과 對照를 이루고 있는 바, 여기서 兩人의 말을 함께 引用해 보자.

8·15後 土地改革의 소리와 함께 殘存해 온 地主層은 自然消滅의 過程을 밟고 있고, 여러가지 客觀經濟的 制約으로 多少의 產業資本家조차 大體로 衰退沒落의 비탈에 구르고 있다. 그런 故로 現代에 있어 嚴正한 經濟的 土臺에 依한 階級對立 分裂鬭爭이란 것은 거의 그 基本條件이 消滅되어 있다. 남은 것은 38南北으로 對立한 國際勢力의 延長形態로서의 兩大 「이데올로기」에 分裂된 派黨의 政權爭奪인 民族과 國際의 勢力, 民主와 共產의 勝敗의 角逐인 것이다. 그것이 民族自主의 獨自의 運動으로서가 아니고 分裂된 民族의 國際依存對立인 것 만큼 民族의 運命을 頓死케 할 危險性이 매우 濃厚하여져 오는 것이다…… 모든 理論이 民族再淪落의 앞에는 꼬리를 감출 것이다. 壬辰亂當時에는 모든 不平對立의 要素를 그대로 가진 채 國民的 協同鬭爭을 한 셈이요, 現代에는 모든 不平對立의 要素가 止揚清算되고서의 國民的 總結合이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⁴²⁾ (民世)

吾人は 이제 同一隸屬과 同一解放에서 모든 進步的이요 反抗帝國主義的인 地主와 資本家와 農民과 勞動者가 한꺼번에 萬民共生의 新發足함을 要請하는 歷史的 命題下에 있음……⁽⁴³⁾ (民世)

(40) 「基本進路」, p. 91. 民世에 의하면 “우통”이란 民衆이 體系없이 無節制하게 反抗하는 것을 指稱하는 순우리말이다.

(41) 「新民族主義」, p. 20, p. 43. 또 그는 p. 38.에서 「新民主主義의 新民族主義」라는 用語도 사용하고 있다.

(42) 「基本進路」, pp. 93-94.

(43) 「新民族主義」, p. 42.

李朝五百年동안 着根成長하여 온 封建의 殘滯는 완전히 掃蕩되지 못하였고 과거 36年間 日本帝國主義의 惡政의 扶植으로 發見된 新生財閥은 巧妙히 變態假裝하여 頑固無知한 狹소를 꿈꾸는 政治的 狂想家들의 反民主主義 一派와 合流하여 民主主義國家의 出現을 極力 反對하고 있다. 그러므로 ……革命協力の 나머지 課業은 이와같은 毒素을 斬草除根하고……
(44) (夢陽)

以上과 같은 兩人的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夢陽이 解放以後의 時代에도 아직 清算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封建의 殘滯와 反民主的 新生資本閥의 存在를 批判하고 그 打破를 猛烈하게 主張하고 있는 반면, 民世는 日帝時代以前부터 계속 相爭해 오던 社會階級的 矛盾은 日帝의 苛酷한 植民政策으로 그 根據가 모두 抹殺되었기 때문에 解放은 全民族이 同一隸屬에서 벗어난 歷史的 계기였고, 따라서 이제는 勞動者, 農民, 地主, 資本家 모두가 萬民共生的 統合獨立 民族國家의 建設에 合心協力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한 점이다. 이같이 階級的 鬭爭보다는 民族的 團結을 앞세운 그의 歷史認識은 그의 新民族主義 政治思想의 大前提이다. 그리고 民世는 新民族主義의 基本思想은 이미 第三章에서 詳述한 바 있는 韓民族固有의 民主主義 原理인, 萬民總言의 民權思想, 大衆共生的 政治原理, 그리고 平和主義를 內容으로 하는 <다사리理念>과 꼭 合致된다고 말했다. 다만 扶餘朝鮮의 諸加評定, 高句麗의 群公會議, 新羅의 和自, 즉 “다사리” 등과 같은 政治方式이 古代에 있어서 治者階級에 局限된 「民主主義」이었으나, 新國家建設의 轉換期에 있어서의 新民族主義는 이러한 傳統的인 民主主義方式을 全民衆에게 擴大시켜, 抽象的, 觀念的인 大衆主義가 아니고, 萬民共生的 治理를 實踐窮行하는 民本政治로 昇化시키는 것을 目標로 하는 것임을 明白히 하였다. (45) 그리고 民世는 이러한 新民族主義의 實踐이야말로 西洋의 社會主義理念의 主體的 受容을 可能케 하고 共產主義者들이 획책하는 階級鬭爭의 大衆革命을 克服, 止揚할 수 있는 最善의 方策임을 強調하였다.

(3) 議會主義

民世는 이같은 新民族主義 政治思想을 現實政治에 實踐하기 위한 具體的

(44) 呂運亨, “民主主義 國家建設의 先務,” 「人民科學」(1946, 3月), p. 51.

(45) 安在鴻, “新民族主義의 科學性과 統一獨立의 課業,” 陳德奎編, 「韓國의 民族主義」(現代思想社, 1979), p. 234 參照.

인 方法도 提示하였는데 그의 構想은 現代的 意味의 「엘리트主義」와 「制度主義」로 要約할 수 있다. 民世는 마르크스가 말한 바 있는 「量的 質로의 轉換法則」이 반드시 大衆動員에 의한 階級鬭爭을 想定하는 데에만 局限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現下 韓國狀況에서 그의 新民族主義를 實踐하는 데에도 有用한 法則임을 主張하였다. 即 民世는 “現下 朝鮮의 歷史的, 社會的 要請이 階級鬭爭을 止揚하여 全民族階級の 結合, 均等社會, 自主獨立, 國家完遂에도 會通하는 것이 確固한 課業으로 되어 있는 바에 多數의 眞正한 科學的, 또는 愛國的인 指導者들의 工作에 의한 漸次的인 量的 加增으로부터 大衆의 質에로의 變化를 일으키면 이 確固한 課業에도 轉換的인 飛躍이 반듯이 될 수 있는 것이다”(46)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民世는 識見있는 指導者들의 對國民啓蒙活動으로 民衆의 意識을 점차 覺省시켜 그 수자가 많아질 때 民衆은 質적으로 變化되고, 民族史의 飛躍을 圖謀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現代에 있어서 「엘리트」의 役割을 重要視한 것이다.

이러한 認識에서 萬民總言, 大衆共生の 新民族主義가 단순한 希望이나 空想으로 끝나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具體的이고 現實性 있는 經濟政策과 大衆의 支持基盤의 構築이 不可缺의 要素임을 強調하고, 이것은 精思立案과 嚴正實踐을 必要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誠實과 聰明을 겸한 指導者와 全民族總意를 具現하는 適法한 國表들의 技術的인 作爲를 須할 바이다”(47)라고 말했다. 이런 意味에서 民世는 議會制度가 現代政治에 있어서 必須不可決의 政治制度임을 強調했는데,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가 議會制度를 통해서 무엇을 期待하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現下 朝鮮에는 日帝侵略 四十年의 結果, 그러한 貴族, 地主, 資本閥의 政治的 支配勢力은 事實에서 消滅되어 있었고, 지금에 있어 國民의 代表가 모이어 憲法을 判定하고 法令을 作成하여 土地와 기타 產業經濟政策을 實現하려고 함에 있어 貴族이나 地主資本閥의 利益만을 特別히 代表하는 편벽된 措置를 斷行할 情勢로는 되어 있지 않다. 即 우리들은 여러가지 波蘭曲折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大體는 合法的인 立法手段으로써 東學亂과 같은 民衆抗爭의 內亂의 流血慘劇을 겪지 않고서도 넉넉히 萬民皆勞,

(46) 「基本進路」, p. 77.

(47) 「新民族主義」, p. 47.

大衆共生の 살기 좋은 祖國을 만들 수 있다.⁽⁴⁸⁾

民主主義와 社會主義理念과의 適正한 調合은 각각 그 境域과 文化傳統과 其他의 具體的인 客觀情勢에 따르는 嚴叔 먼밀한 實踐途程에서 決定될 것이니 急燥한 喧騒는 도리어 大衆의 嚴忌를 促成하는 것이다. 吾人은 建國의 企劃에 있어 相應한 社會主義施設을 함을 要하나니 그 技術的 配定은 專門家의 事案에 屬한 바이오 지레부터 耀揚함을 要치 않는다.⁽⁴⁹⁾

以上の 引用에서 보듯, 民世는 議會制度가 國家政策의 大衆의 支持와 參與를 確固히 하고, 어느 階級에도 偏向되지 않는 政治活動을 遂行하며 특히 社會主義의 理念의 長點을 認識하고 그것을 實踐하려는 政治엘리트들의 지혜와 能力을 總合함으로써 階級鬭爭의 大衆革命을 克服하고 均等社會, 共榮國家의 建設에 貢獻할 수 있다고 論했던 것이다.

V. 結 論

民世는 歷史란 鬭爭의 歷史라고 規定하고 그것은 〈民族鬭爭〉과 〈階級鬭爭〉의 두가지 次元이 있는 바, 韓民族史에 관한 限 지금까지 階級鬭爭의 民衆抗爭의 史實은 많았지만 大部分 民族鬭爭次元의 矛盾이 훨씬 더 큰 決定要素였기 때문에 어느 경우도 成功的인 全社會的 改革을 招來하지는 못했음에 留意했다. 그리고 그는 1945年의 8.15解放은 韓民族의 全階級이 隸屬狀態에서 벗어난 〈民族解放〉인 故로 新國家建設의 基本理念은 階級鬭爭 次元의 矛盾을 止揚하고, 特定社會階層의 利益을 排他的으로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같은 民世의 歷史意識과 現實認識을 背景으로 形成된 그의 新民族主義 政治思想을 整理,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固有의 最高政治源理인 〈다사리理念〉은 나—나라—누리(個人—國家—世界)의 調和, 卽 萬民共생을 最終目標로 하는 바, 그것은 萬民總言(咸言)의 民權思想, 大衆共榮의 民主思想, 階級鬭爭克服의 平和思想을 要諦로 하고 있다.

둘째, 「新民族主義」는 이와같은 〈다사리理念〉의 現代的 表現으로 均衡經濟, 平權政治, 大衆共생을 具現함으로써, 西洋의 bourgeois democracy와 社

(48) 「基本進路」, p. 60.

(49) 「新民族主義」, pp. 19-20.

會主義를 理念的으로 止揚, 綜合하는 政治思想이다.

세째, 「新民族主義」는 目的實踐의 方法으로서 共產主義的 大衆革命方式을 排除하고 專門的인 識見과 經驗을 具備한 政治엘리트와 그들로 構成된 議會 制度에 의해서 實踐되어야 한다.

이러한 民世의 「新民族主義」가 現代韓國 政治史上 出現했던, 特히 解放以後의 混亂期에 있었던 韓國民族主義의 한 形態였다는 事實에 留意하여 그것을 韓國民族主義의 展開過程이라는 歷史的 틀속에서 眺望할 때 筆者는 다음과 같은 評價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新民族主義」는 韓國民族主義史上 傳統的인 抵抗民族主義를 個別性과 普遍性을 綜合하는 主體의 民族主義로 轉換시킬 수 있었던 政治思想이었다고 생각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近代韓國의 民族主義는 他律的 開港, 列國의 干涉, 日帝의 強壓의 併呑 등으로 이어지는 否定的 歷史經驗에서 發生했던 理由로 必然的으로 抵抗 내지 鬪爭의 性格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歷史經驗에서 出發한 民族主義는 「民族의 原狀復舊」, 即 獨立과 自主性回復의 目標成就를 위한 手段에 불과했고 民族의 個體의 特殊性만 強調했기 때문에 民族과 民族, 國家와 國家가 만나는 世界平和, 相互共存의 普遍的 民族主義로까지 展開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民世의 「新民族主義」는 統一獨立 民族國家의 完成을 具體的인 目標로 設定함으로써, 韓民族史에서 면면히 유지되어온 一體性(national identity)의 當爲性을 主張하는 一方, 個即全, 一即多, 또는 나→나라→누리의 朝鮮哲學에 基礎하여, 個人과 民族(國家)과 世界는 萬民共生的 普遍原理에 의하여 만나고 있음을 論하였다. 即 民世의 「新民族主義」는 民族의 個別性이 保存되고 그것이 世界에 擴散되는 普遍的 이데올로기로서의 性格을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民世의 「新民族主義」는 韓國의 民族主義를 西洋의 社會主義理念과 理念的으로 結合시키려 했던 政治思想이었다고 볼 수 있다.

韓國政治에 社會主義 내지 그 亞流가 登場한 것은 1917年 러시아의 볼셰비크革命을 前後한 時期에 나타났던 〈朝鮮社會黨〉, 〈韓人社會黨〉, 〈高麗共產黨〉 등과 같은 이른바 左翼政治集團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과 以後의 獨立鬪爭過程에서 出現했던 社會主義運動은 社會主義, 마르크스즘, 共產主義 등에 대한 體系的인 研究批判이 다소 不足했었기 때문에 韓國政治思想史의 脈絡에서 意味있게 評價하기엔 未恰한 감이 없지 않다. 잘 아는 바와

같이 獨立運動期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는 어느 것 할 것 없이 獨立 爭取의 手段으로서 反帝, 反植民, 反資本主義의 鬭爭道具로서의 性格이 강했었다. 그러나 民世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韓國固有의 歷史觀, 國家觀, 世界觀 等の 政治哲學을 바탕으로, 마르크시즘의 理論의 限界, 矛盾, 缺陷을 指摘하고 韓民族史의 獨立性과 聯關하여, 그 是是非非를 分別하여 取할 것은 取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誠實性을 보여 주었다. 即, 民世는 마르크스가 主張하는 階級鬭爭의 要素가 韓國의 歷史에도 存在함을 認定하고 社會主義의 思想的 價値를 認定하였지만, 그러한 社會主義理念은 韓國固有의 <다사리理念>의 回復으로 專門의 政治엘리트와 議會를 통하여 平和的인 節次에 따라 얼마든지 受容·實踐될 수 있는 韓國의 狀況의 獨立性을 強調하였다. 이와 같은 民世의 立場은 政治思想의 受容은 언제나 時代와 地理와 文化·歷史의 性格을 두루 綜合하는 지혜로써 實踐되어야 한다는 그의 <綜合的 唯物史觀>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現代의인 意味에서 보면 韓國政治史上 民主社會主義(Democratic socialism)의 萌芽로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 民世의 「新民族主義」는 解放以後에 보기 드문 自生的 政治이데올로기로써 民族史의 날(經)과 씨(緯)를 엮을 수 있었던 民族主義였지만, 美·蘇의 冷戰의 對立과 南北分斷이라는 不幸한 狀況에 의해 희생된 代表的인 케이스였다. 「新民族主義」는 均衡經濟, 平權政治, 大衆共生の 統一獨立民族國家의 建設을 그 具體的 目標로 삼았었고 이것을 實踐하고 大衆의 基盤의 確立을 위한 「國民黨」이라는 政治集團도 있었으며 個即全의 政治哲學으로 大同主義, 世界主義, 國際平和主義를 표방하여 國際的인 通用력도 가질 수 있는 政治思想이었지만, 8·15 解放이 되자마자 強大國이 介入하여 韓民族의 主體的 歷史展開의 條件이 이미 파괴되었고, 同時에 民族은 南北으로 分斷되었던 狀況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自生的 民族主義는 정상적으로 開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解放直後의 民族的 混亂期 못지 않게, 우리 民族이 나아가야 할 基本方向을 提示해 줄 수 있는 政治理念 내지 國家哲學이 切實하게 要求되는 時代的 狀況에 놓여 있다. 解放된지 三十餘年이 지난 現今에도 民族構成員 全體가 하나로 結集될 수 있는 共同體倫理로서의 民族主義理念을 定立하지 못하고 있는 現實은 이러한 問題에 關心을 갖고 研究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反省의 필미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問題意識의 脈

絡에서 볼 때, 지금까지 筆者가 分析, 整理한 民世의 新民族主義 政治思想은 앞으로 未來韓國의 民族主義理念을 研究, 定立시키는 過程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韓國民族主義의 一類形”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民世의 新民族主義는 韓民族의 傳統的인 國家哲學[다사리 理念]을 바탕으로 하고(體), 西歐의 諸政治思想을 批判的으로 克服, 受容하려는(用), 이른바 東道西器의 主體의 立場에서, 韓民族의 窮極的인 國家哲學을 體系化하려 했던 努力의 한 所産으로 評價할 수 있는 內容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1. 安在鴻의 著書, 評論, 其他

- 安在鴻,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 新朝鮮叢書 第一輯, 서울, 民友社, 1945.
 ———, 「韓民族의 基本進路」, 新朝鮮叢書 第二輯, 서울, 朝陽社, 1949.
 ———, 「眞正民主主義論」, 서울, 一韓圖書, 1949.
 ———, 「朝鮮上古史鑑」上·下卷, 서울, 民友社, 1947.
 ———, “內外情勢와 建國展望,” 「大潮」(1946. 1)
 ———, “民政長官을 辭任하고: 岐路에 선 朝鮮民族,” 「新天地」(1948. 7)
 ———, 民衆深化過程,” 東亞日報社 編, 「現代韓國名論說集」서울, 東亞日報, 1972.
 ———, “新民族主義의 科學性과 統一獨立의 課業,” 陳德奎編, 「韓國의 民族主義」서울, 現代思想社, 1976.
 ———, “學生時代의 懷古,” 「新東亞」(1935. 4)
 ———, “悲痛! 祖國의 覆沒,” 「新天地」(1946. 8)
 ———, “나의 交友錄,” 「三千里」(1949. 2)
 ———, “牢屋深深人不到,” 「三千里」(1949. 2)
 ———, “隱遁生活과 鬪爭生活,” 「朝鮮之光」(1926. 11)
 ———, “漢陽朝五百年 總評,” 「東光」(1932. 7)

2. 國內文獻(論文·著書·其他)

- 柳光烈, “安在鴻論,” 「東光」第四卷七號(1932. 7)
 任洪彬, “安在鴻論,” 「政經研究」(1965. 9)
 李瑄根, “나의 民世觀,” 「週刊朝鮮」(1974. 8)
 金德亨, “名家의 現場—安在鴻,” 「週刊朝鮮」(1974. 8)
 李庭植, “構成—民世安在鴻의 自叙傳,” 「新東亞」(1976. 11)
 千寬宇, “民世安世鴻年譜,” 「創作과 批評」(1978, 겨울)
 고심백, “각당각파의 人物記,” 「民心」(1945. 11)
 呂運亨, “民主主義國家建設의 先務,” 「人民科學」(1946. 3)

- 李仁, “解放前後片片錄,” 「新東亞」(1967.8)
- 崔恩喜, “交友半世紀,” 「여원」(1965.8)
- 金大商, “解放直後の政治現象,” 「創作과 批評」(1977, 겨울)
- 李東華, “呂運亨의 政治活動,” 「創作과 批評」(1978, 여름)
- 李洪九, “韓國民族主義研究를 위한 基礎의 思考,” 「曉岡崔文煥博士追念論文集」(1977).
- 金學俊外, 「解放前後史의 認識」, 서울, 한길사, 1980.
- 崔相龍外, 「韓國民族主義의 理念」, 서울 亞細亞政策研究院, 1977.
- 陳德奎編, 「韓國의 民族主義」, 서울, 現代思想社, 1979.
- 車基壁, 「韓國民族主義의 理念과 實態」, 서울, 까치, 1978.
- 李用熙·盧在鳳, 「韓國民族主義」, 서울, 瑞文堂, 1977.
- 宋建鎬, 「韓國民族主義의 探究」, 서울, 한길사, 1977.
- 慎鋪夏外, 「韓國近代史論」, I, II, III, 서울, 知識產業社, 1977.
- 崔昌圭, 「韓民族近代化政治論」, 서울, 斯文學會, 1975.
- 崔民之外, 「日帝下民族言論史論」, 서울, 日月書閣, 1978.
- 大學新聞社, 「韓國近代史의 再照明」,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79.
- 趙芝薰, 「韓國民族運動史」, 高天民族文化研究所, 1964.
- 崔錫采編, 「日帝下의 名論說集」, 서울, 瑞文堂, 1976.
- 鄭晉錫, 「日帝下 韓國言論鬭爭史」, 서울, 正音史, 1979.
- 柳光烈, 「記者半世紀」, 再版, 서울, 瑞文堂, 1974.
- 崔 坡, 「韓國新聞史」, 서울, 一潮閣, 1970.
- 朝鮮日報社, 「朝鮮日報五十年史」, 1970.
- 李起夏, 「韓國政黨發達史」 서울, 議會政治社, 1961.
- 韓太壽, 「韓國政黨史」, 서울, 新太陽社, 1961.
- 韓國史料研究所, 「解放三十年史 I」, 서울, 1974.
-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第三卷, 서울, 1976.
-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大韓民國政黨史」第一輯, 서울, 1973.
- 崔文煥, 「民族主義의 展開過程」, 再版, 서울, 三英社, 1979.
- 洪善熹編, 「語錄·民族의 소리」, 서울, 太極出版社, 1979.
- 英國社會主義同盟, 林鍾哲(譯) 「20世紀社會主義」, 서울, 日新社, 1978.

3. 外國文獻

- ① Berger, Carl, *The Korea Knot: A Military-Political Hist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7).
- ② Cho, Soon Sung, *Korea in World Politics. 1945~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③ Durbin, E.F.M., *The Politics of Democratic Socialism*. 趙一文, 金明珍(譯), 「民主社會主義」, 서울, 日新社, 1967.
- ④ Ebenstein, William, *Today's Isms* (7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 ⑤ Handerson, Gregory, *Korea: The Politics of Vortex* (Cambridge: Harvard Uni-

- versity Press, 1968).
- ⑥ Kohn, Hans, *Nationalism* (Princeton: Van Nostrand, 1955). 車基璧(譯), 「民族主義」, 三星文化財團, 1974.
 - ⑦ Lee, Chong-Sik,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 ⑧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⑨ Watkins, Frederick, *The Age of Ideology, Political Thought from 1750 to the Present* (N.J.: Prentice-Hall, 1965). 李洪九(譯), 「近代政治思想史」, 서울, 乙酉文化社, 1973.